

예능판 접수한 '코빅 동문들'

(tvN '코미디 빅리그')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도약한 개그맨들. 왼쪽부터 박나래, 장도연, 양세형, 황제성.

스포츠동아DB

코빅 출신 개그맨들 예능서 활약 코너 통해 시청자와 교감 시너지 박성재 CP "예능 병행 적극 권장"

'예능 대세'가 되려면 tvN 개그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를 거쳐라?

최근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젊은 피'로 불리며 주목받는 박나래, 장도연과 양세형·세찬 형제, 이웅진, 황제성. 이들은 모두 '코미디 빅리그'(코빅) 출신이다. 이들처럼 새로운 '예능 대세'들을 다수 탄생시킨 '코빅'이 개그맨들이 시청자와 교감하며 감각을 쌓을 수 있는 무대로서 가치를 새삼 인

정받고 있다.

2011년 시작해 9년째 방송 중인 '코빅'은 14일 300회를 돌파했다. '코빅'은 기존 개그프로그램의 공개 코미디 형식을 유지하는 대신 '경쟁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코너별 등수를 매기는 시스템은 개그맨들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했다. 또 쿼터제로 진행해 분기마다 새 코너들을 선보였다. 이처럼 신선함을 위한 여러 장치 덕분에 '코빅'은 침체기 없이 꾸준히 3%(닐슨코리아)를 웃도는 시청률을 기록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코빅 출신' 각 개그맨들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예능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다. 박나래와 장도연이 대표적이다.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잔내투어'를 이끌고 있다. 덕분에 그는 지난해 각 방송사의 강력한 연예대상 후보로 거론됐고, MBC 올해의 예능인상을 거머쥐었다. 장도연은 SBS '미추리 8-1000' 시즌1·2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며, tvN '인생술집', 올리브 '밥블레스유'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2월부터는 채널A '도시어부'에 합류해 이덕화, 이경규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많은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도 '코빅'에서 각각 '2019 장희빈'과 '갑분싸' 코너를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개그 무대에만 주력해온 이용진은 KBS 2TV '1박2일'을 시작으로 예

능프로그램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제성도 채널A '비행기 타고 가요'로 첫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에 도전해 주목을 받았다. 양세형·세찬 형제는 각각 SBS '집사부일체'와 '런닝맨' 멤버로 활약 중이다.

이들의 활약에 대해 '코빅'의 박성재 CP는 25일 "개그맨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력 있게 코너를 만들어 예능프로그램 활동과 '코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너 속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쌓은 인지도를 예능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이들의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해시태그 컷



"무대 밖 여신은 나야"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무대 밖에서도 빛나는 미모를 자랑했다. 공연을 준비 중인 로제가 무대 아래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핑크빛 의상이 그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배가시키고 장난기 넘치는 표정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팬들은 "정말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블랙핑크 #로제 #무대밖이궁금해?

부담감 내려 놓은 전도연 스크린 두편서 변신 예고



톱스타 전도연이 가슴 설레는 시기를 맞고 있다. 2015년 '남과 여' 이후 4년 만에 신작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새로운 행보다.

전도연은 올해 두 편의 신작 개봉을 앞두고 있다. 4월 개봉하는 영화 '생일'과 지난해 11월 말 촬영을 마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다.

두 편은 전도연이 이전과는 다른 결심으로 나서는 무대이다. 전도연은 2007년 '밀양'으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던 '칸의 여왕'이란 별칭이 이름 석 자 뒤에 늘 따라 붙어 스스로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작품적 완성도라는 별개인 흥행 성도가 뚜렷하지 않았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본격적인 상업영화 두 편을 잇달아 내놓는 데다 출연작의 메시지가 안길 의미의 무게 때문이다.

휴먼드라마 '생일'은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그리는 영화. 전도연은 사고가 남긴 고통 속에서 사회적 시선에 애끓는 모성을 드러내는 엄마 역을 연기했다. 또 미스터리 스릴러를 표방해 사건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을 그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전도연은 파격적인 이미지의 인물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다채로운 색깔의 연기가 가능한 배우로서 자신의 역량을 오랜 만에 펼쳐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토리와 캐릭터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펼쳐내기 위해 중견배우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소속사 매니저먼트 숲의 한 관계자는 25일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오랜만의 신작인 데다 그가 짊어질 책임이 그만큼 큰 탓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데뷔 보름 만에...빌보드 차트에도 '있지'

있지 '달라달라' 음악프로 1위 행진 유튜브 6000만 뷰...해외서도 핫해

5인조 신인 걸그룹 있지(ITZY)가 예상 외로 뛰어난 데뷔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트와이스의 동생 그룹'으로만 화제를 모았던 이들이 데뷔한 지 보름 만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 5명의 10대로 구성돼 색다른 개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틴크러시'를 내세워 20대 여성들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각종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근래 보기 드문 승승장구에 "과목 신인으로 우뚝 성장했다"는 국내의 평가가 잇따른다.

이들은 12일 발표한 데뷔 앨범 '있지 디

퍼런트'의 타이틀곡 '달라달라'로 25일 이후 현재 각종 음원차트 1~2위를 기록 중이다. EDM과 하우스, 힙합 등 여러 장르를 섞은 노래로 경쾌한 멜로디가 듣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각 방송사의 대표 음악프로그램 순위도 다른 걸그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있지는 23일 방송한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그에 앞서 21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22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도 1위에 올랐다. 2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케이팝 걸그룹 가운데 최단 기간 1위 행진이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달라달라'는 단숨에 미국 빌보드의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수록곡



신인 걸그룹 '있지'

인 '윈트 잇'도 8위에 올랐다. 유튜브 조회수 6000만 뷰를 넘긴 '달라달라' 뮤직비디오도 빌보드 유튜브 차트에서 2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빌보드는 "케이팝 가수 데뷔곡이 각종 차트에 진입한 건 있지가 처음이며 최고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빅히트 "표절? 유사성 성립 안돼"



빅히트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프랑스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공이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유사성 논란은 성립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포공은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영 포에버' 사진집 일부와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여름방학' 연작 '향연' 등 일부 작품의 배경 및 연출 구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빅히트 측은 "촬영 때 흔히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맞서고 있다.



박성웅

연기자 박성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행사에 참여한다. 박성웅은 80년 전 강제징용돼 희생된 채 일본 오사카 사찰에 안치되어 있었던 74위의 유골을 봉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리는 환향식 사회를 맡는다. 또 3월1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추모식 '동포여, 나를 위해 물어주세요'의 사회자로도 나선다.



전소미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가 5월 솔로로 데뷔한다.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25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 테디가 프로듀싱을 맡는다고 밝혔다. 전소미는 이미 녹음 등 솔로 앨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전소미는 2015년 엠넷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손잡은 걸그룹 프로젝트 '식스틴'으로 데뷔한 뒤 이듬해 엠넷 '프로듀스 101'을 통해 아이오아이 멤버로 활약했다.



강한나

연기자 강한나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연예기획사 판타지오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22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대한상사중재원은 "강한나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한나는 지난해 3월 판타지오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스타디움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독자 활동 중이다.

빅히트 "표절? 유사성 성립 안돼"

박성웅, 징용 유골 봉환 행사 진행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 솔로 데뷔

"판타지오, 강한나 전속계약 유효"